

“더욱 ‘과감한’ 손흥민이 필요해”

“골 욕심 더 내겠다”...레바논戰 ‘해결사’ 약속
“이라크戰 ‘시간 지연’ 발언 내 소신 변함없어”

‘도우미보다는 해결사로!’

태극마크를 달면 소속팀에서 보 여주던 날카로운 해결사 본능 대신 동료들을 돕는 도우미 역할에 더 충실해지는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29·도트넘)에게 레바논전을 앞두고 ‘과감한 골잡이’의 모습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벤투호는 지난 2일 치러진 이라크와 최종예선 1차전 경기에서는 68%의 볼 점유율에 15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무득점에 그치며 0-0으로 비겨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는 동안 전반 23분 단 한 차례 슈팅에 그쳤다.

볼을 이어받으면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는 도우미 역할과 더불어 코너킥 세트 피스 키퍼 역할에 더욱 충실했던 결과다.

손흥민은 벤투호 출범 이후 22경기 A매치에 나서 4골을 터트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인정받는 ‘월드클래스’ 공격자의 모습과는 사뭇 낯선 기록이다.

다만 A매치와 프로리그 경기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손흥민을 향한 상대 팀들의 견제 수준이 달라서다.

이라크전에서는 상대 선수 한 명이 이에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며 움

직임을 방해했다.

여기에 한국이 상대하는 아시아 팀들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수비 후역습’만을 노린다.

더불어 세밀한 조직력으로 상대의 좁은 공간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터라 손흥민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플레이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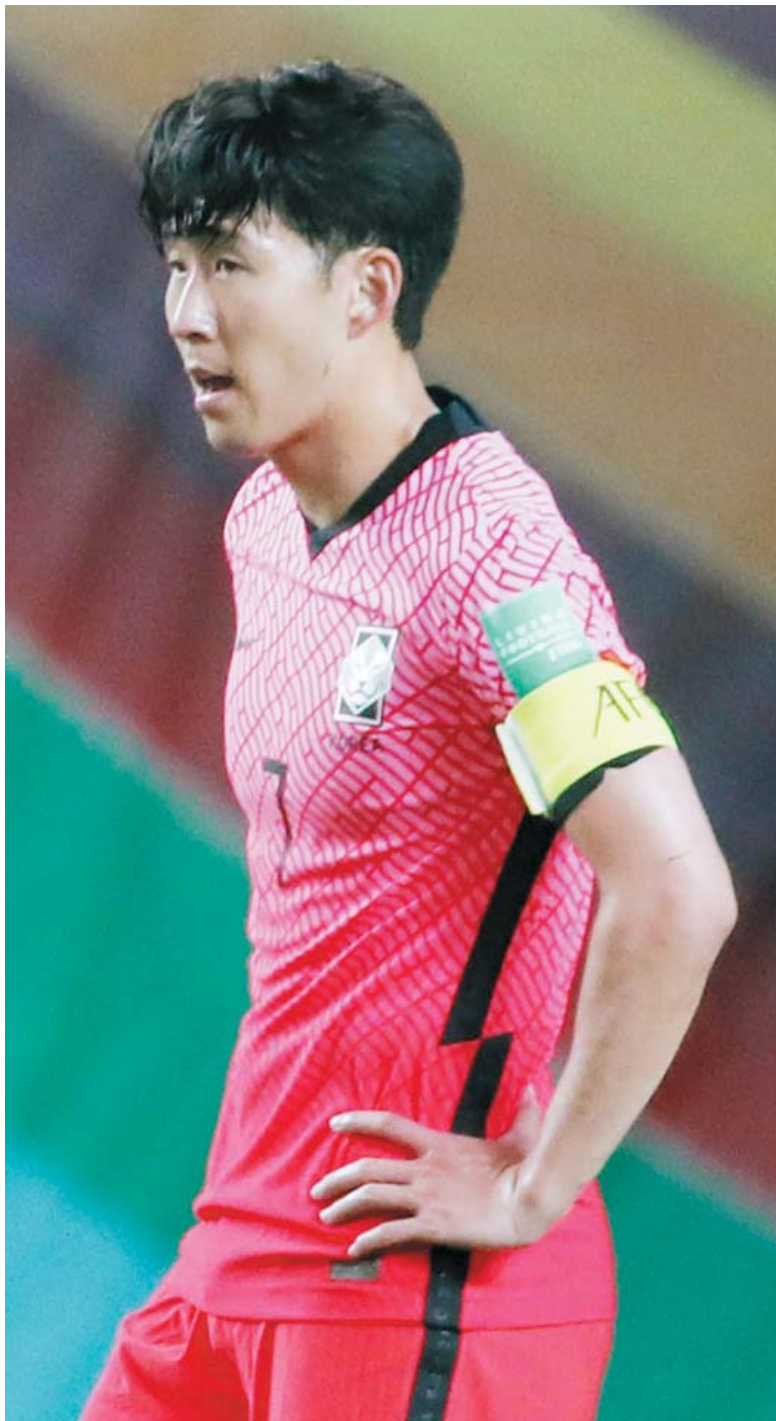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도 슈팅을 자제하고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모습이 많았다.

결국 손흥민이 도우미의 짐을 덜어내고 해결사 본능을 더 살리지 않으면 7일 레바논전도 답답한 경기가 예상된다.

이번 레바논과 2차전도 선제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해결사’ 손흥민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한편, 손흥민은 5일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가 침대축구를 했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플 테스트를) 함께 받은 이라크 선수도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해줬다. 선수 대 선수 입장으로”라면서 “아드보카트 감독이 나와 다른 경기를 본 것인가? 하는 게 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라크전에서 슈팅 수 ‘1개’에 그쳤던 손흥민은 “ 좋지 않은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면 팀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욕심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고쳐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1차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친 손흥민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평가...전남 '전국 2위'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 지급 평가 농어촌형 그룹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화순군체육회의 주민 에어로빅 수업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화순군체육회 “경사났네” ‘농어촌형 그룹’ 전국 1위

전남도체육회가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위를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5일 “대한체육회가 평가하는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성과평가에서 총점 80.35점을 획득,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북(81.4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발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전남은 사업 운영능력 50점 만점에서 38.46점, 참여자 만족도 20점 만점에서 16.32점, 지도자 업무성과 30점 만점에서 25.58점을 획득해 총점 80.35점을 얻었다.

2017년 5위, 2018년 8위, 2019년 4위

의 성적을 각각 거둔 전남은 이번 2020년 평가에서 2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시·군·구체육회를 그룹별로 나눠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평가에서는, 농어촌형 그룹에서 화순군체육회가 총점 92.77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도·농복합형 그룹에서 나주시체육회가 총점 87.03점으로 2위, 순천시체육회가 총점 83.56점으로 5위에 오르며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도민 건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57명의 노고와 열정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으뜸가는 평가를 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양질의 수업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종 기자

김광현 ‘2회를 못 버티고...’

밀워키戰 1⅓이닝 7피안타 4실점 ‘최악投’...시즌 7패째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못매를 맞았다.

김광현은 5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치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1⅓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7개를 맞고 4점을 줬다.

김광현은 0-4로 뒤진 2회말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구원 제이크 우드퍼드가 크리스천 엘리치를 삼진으로 낚아 김광현의 자책점은 더는 늘지 않았다.

팀이 0-4로 져 김광현은 시즌 7패(6승)째를 당했다.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은 3.23에서 3.53으로 올라갔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이자 리그 와일드카드 4위인 세인트루이스는 뼈아픈 패배를 당한 데 반해 밀워키는 중부지구 1위를 공고히 했다.

올해 21번째로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2⅓이닝 만에 몰란 7월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 이래 가장 적은 이닝을 던졌다.

백리기에 데뷔한 지난해 성적에 합쳐도 김광현이 2이닝을 못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현은 왼쪽 팔꿈치 염좌 증세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돌아



5일 열린 밀워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한 김광현이 2회 집중타를 맞고 아쉬워하고 있다.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온 8월 25일 이래 세 차례 등판했고, 8월 30일 피츠버그 파이리츠 경기에서 이어 2경기 연속 선발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치아 9회 연속 금메달...도쿄 대회 대한민국 두 번째 ‘금빛 감동’ 선사



지난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보치아 페어(BC3)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최예진, 정호원, 김한수가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보치아 페어(2인조) 대표팀은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의 가와모토 게이스케, 다카하시 가즈키, 다나카 게이코와 연장 접전 끝에 승리했다. 4연대까지 4-4(3-1 10-0 10-3)로 맞선 한국은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1점을 더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패럴림픽에서 나온 한국 보치아 대표팀의 첫 금메달이자, 전체 대한민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더불어 한국 대표팀은 9회 연속 패럴림픽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보치아 강국인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패럴림픽에서 8차례 연속 금메달을 수확해 왔다.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9연패를 이뤘듯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를 밝힌 보치아 대표팀은 목표를 이뤘다. /연합뉴스

한국 장애인 양궁 53년 만의 노메달



한국 장애인 양궁이 패럴림픽에서 53년 만에 ‘노메달’을 기록했다.

김민수(22·대구도시철도공사)-조장문(55·광주시청) 조는 4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양궁 혼성 단체 리커브 오픈 8강전에서 러시아 패럴림픽위원회(RPC)의 마르가리타 시도렌코-키릴 스미르노프 조에 세트 점수 2-6(29-28 33-34 29-34 30-37)으로 패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오전 16강전에서 태국(세트 점수 5-4)을 극적으로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도쿄 패럴림픽을 메달 없이 마무리했다.

역대 패럴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메달을 따지 못한 첫 패럴림픽 출전이었던 1968 텔아비브 대회 이후 53년 만이다.

1972 하이델베르크 대회부터 2016 리우 대회까지는 메달을 놓친 적이 없었다. /연합뉴스



강경남이 5일 열린 KPGA 코리아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KPGA 제공>

강경남, 50개월 만에 ‘왕좌 복귀’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 연장 접전끝 옥태훈 제압

‘승부사’ 강경남(38)이 50개월 만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강경남은 5일 나주의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코리아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총상금 6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강경남은 옥태훈(23)과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강경남은 2017년 7월 진주저축은행 카이도 남자오픈 이후 4년 2개월 만에 투어 대회 왕좌에 복귀했다.

투어 통산 11승을 달성한 강경남은 우승 상금은 1억 2천만원을 받았다.

11승은 투어 다승 순위에서 최윤수와 함께 공동 7위에 해당하고, 현역 선수 가운데는 최다승이다.

투어 통산 최다승 1위는 43승의 최상호, 2위가 20승의 박남신이며 강경남 외

에 김대섭이 10승, 배상문과 박상현은 9승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챔피언스투어에서 뛰는 최경주는 16승으로 4위다.

강경남은 11승 가운데 2006년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오픈, 2013년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승을 나주에서 따내는 좋은 인연을 이어갔다.

특히 2013년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과 이번 대회는 코스가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으로 같았다. /연합뉴스